

韓國婦人の産褥期實態에 관한 研究 (I)

—서울—

A Study on Realities of Puerperal Period of Korean Women

目 次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 2. 研究目的
 - 3. 理論的 背景
- II. 研究方法 및 節次
 - 1. 道 具
 - 2. 標集對象
 - 3. 資料處理
- III. 調查對象者의 性格
- IV. 研究結果 및 解釋
- V. 要約 및 提言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Dongkuk University

專任講師 李 貞 德
Instructor Lee, Chung Duk

<Abstract>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realities of puerperal period of Korean women, chiefly in the city of Seoul, on the basis of their living standard, schooling career by age group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health of mother and child.

In this paper in which the writer, making 492 women in Seoul a subject of this investigation and giving them 34 items of questionnaires, has studied their concern and practices to recover their health during a lying-in period, and drawn a conclusion as follows: Though their place of childbirth and food they take during the period are varied according to their standard of living, their practices and managements after parturition are true to the conventional usage which is far from modern scientific methods.

Proposals for the better management during puerperal period are:

1. to have expectant and nursing mothers better educated in their antenatal care;
2. to let the family planners have more understanding about the problems of puerperal period;
3. to make those who are concerned study on the problems interdependent between puerperal period and pregnancy and child birth.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母性의 건강은 妊娠, 出産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거기서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婦女子들의 妊娠 및 出産後의 건강관리는 소수층을 제외하고 매우 비합리적인 실정에 있다. 그것은 經濟的인 面이 主要因이라 하겠으나 이에 앞서 出産學에 대한 知識不足과 오랜동안 답습해 내려오는 非科學的인 因襲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다.

1960年代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人口政策의 일환인 家族計劃事業의 부음을 입어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부터 家族計劃 및 母子健康事業이 政府施策으로 크게 주력되고 있는 중이다. 妊娠, 分娩, 出産後 攝生은 서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家族計劃事業面에서도 產褥期에 관한 단편적인 研究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이렇다하게 뚜렷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 부인들의 產褥期에 관한 전반적인 實態와 그 因襲을 파악하려는데 그 意義를 두며 다음과 같은 目的을 가진다.

2. 研究目的

- ① 韓國婦人の 產褥期攝生 및 健康管理의 實態를 파악한다.
- ② 產褥期間의 禁忌와 因襲을 알아 본다.
- ③ 우리나라 農村과 中都市, 大都市의 產褥期管理의 差異點을 비교 검토한다.
- ④ 이상적인 產褥期管理 方案을 모색한다.

本稿 I에서는 서울지방의 실태를 ① 經濟水準別 ② 年齡別 ③ 學歷別로 檢討하고 論文 II에서 農村, 中都市, 島嶼지방을 비교 발표하려 한다.

3. 理論的 背景

1) 産褥의 定義

産褥期(puerperium)¹⁾란 分娩後 모든 生殖기관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産後 6~8週間을 뜻한다. 이 기간중의 重要 기능은 ① 子宮의 退縮(Involution of Uterus) ② 惡露分泌(Discharge of Lochia) ③ 乳汁分泌(Lactation) 등이다.

産褥期는 정상적인 生理過程이긴 하지만, 건강상태와의 關係를 이룬다는 점에서²⁾ 重要한 시기이다.

2) 해부학적 變化

◇ 子宮 : 産後腹部基底의 높이를 관찰함으로써 子宮의 퇴축현상을 알 수 있는데 분만직 후 子宮은 10~12cm 크기로 배꼽과 같은 높이에 놓여있다. 子宮기저의 높이가 줄어드는 비율은 1일에 약 반인치씩이다. 胎盤이 붙었던 자리(6~8주 걸립)를 제외한 나머지 內膜부분의 재생과정에는 3~4주 걸리며 子宮의 크기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5~6주 걸린다.

◇ 頸部(Cervix) 및 腔 : 産後 경부부분은 부드럽게 늘어졌다가 1週後는 현저히 좁아지며, 또한 妊娠中 커졌던 陰門, 腔등도 退縮된다. 出産동안 팽창했던 卵巢와 나팔관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惡露 : 산욕기중의 腔의 分泌物를 말한다. 分娩後 數日間은 赤色으로(lochia rubra)가 현피와 함께 배출되고 3~4日後는 血청으로(lochia serosa), 10日後는 白色으로(lochia alba), 3週後에 分泌가 끝난다. 오로의 분비량은 약 225gm으로 分娩後 70~90時間에 최대량이 分泌된다. 수유산모보다 비수유산모에게, 또 다산부에게 분비물이 많다.

◇ 腹壁 : 産後 얼마간은 부드럽고 늘어진 상태가 지속되나 약 6週에는 복부구조도 퇴축된다. 그러나 탄력성있는 피부질의 파열로 줄무늬는 남게 된다. 休息, 食餌, 지시된 運動(knee-chest position)³⁾, 좋은 자세 등은 筋肉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 乳房 : 胎盤의 제거와 더불어 妊娠동안 금지되었던 hormon이 활동하여 수유를 선도한다. 分娩後 2日間은 乳汁의 分泌作用이 활발치 않고 소량의 초유(colostrum)가 배출된다. 보통 産後 2~4日後부터 乳汁分泌가 시작되는데 이때 乳房에 박동성 동통이 수반될 때가 있다. 乳兒授乳는 유즙순환과 子宮수축을 촉진시키며 아울러 아기의 Sucking need를 만족시키므로 産母는 分娩後 수유로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食事, 수면, 휴식, 적당한 운동, 정신적 만족등은 유즙분비를 촉진시켜 주며 반면 과도한 활동, 피로 등은 유즙분비를 억제시킨다. 유방의 外形的 크기는 분비선 조직만큼 중요치 않다⁴⁾.

3) 임상학적 변화

◇ 體溫 : 産後 38°C로 상승했다가 24시간 이내에 정상체온으로 하강하여야 정상적이다.

◇ 맥박 : 산후 10日 동안은 보통 서맥(60~70회/분)을 유지한다.

◇ 產褥痛(After pain) : 초산부에게는 강직성 수축이 조래되고 경산부에게는 간헐적 수축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통 48시간 후에는 감퇴된다. 產後痛은 breast-feeding mother나 子宮이 많이 늘어난 妊娠일수록 많다.

◇ 消化 : 產後 3~4日경에는 食慾이 줄 수 있으나 그後 產褥期 동안 消化기관은 정상작용을 한다. 그리고 產褥期와 관련된 水分의 증발 때문에 갈증이 증가한다.

◇ 體重 감소 : 분만과정에서 6.3kg, 產褥期中 2.25kg, 총 9kg 내외의 체중감소가 있다. (산육기중 배설물의 현저한 증가 탓)

◇ 腎臟(kidneys) : 產褥期 중의 소변의 量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첫 배설이 중요하다) 產後 2~5日경에는 이뇨작용이 활발해져서 1日 3,000cc의 소변을 배출한다.

◇ 배변 : 복벽의 이완으로 변비증세가 조래된다. 產後 第2日 저녁부터 가벼운 하제 투여나 관장등을 실시한다.

4) 產褥期의 攝生

◇ 保溫과 休息 : 分娩 직후는 產母로 하여금 下肢를 펴고 편히 눕게한 後 담노를 덮어 保溫에 힘쓴다. 특히 겨울철에는 發汗으로 인한 오한, 감기등에 유의하여 실내온도와 환기를 조절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낮잠이 반드시 필요하다)을 취하도록 하고 產母의 상태가 허용되면 침상에 누인채 部分목욕(The first complete bed bath after delivery)⁵⁾으로 전신을 청결히 하여 주는 것이 좋다.

◇ 會陰管理 : 배뇨, 배변후 외음부를 소독수로 청결히 닦으며 會陰 pad의 교환시는 外陰部의 大腸菌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쪽부터 고정시키고 뒤로 보낸다. 뒷물때도 陰部에 향문으로부터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Shower 방법으로 실시한다.

◇ 목욕 : 出產直後는 Bed bath를 하여 產母의 體力소모를 막는다. 그 다음 단계로 部分목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Shower 시설이 있으면 離床하자 곧 목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 또한 회음열상이 있을 때는 離床이 되었어도 목욕을 연기하여야 한다) Tub bath는 產後 2週後가 좋다⁴⁾.

◇ 유방섭생 : 무엇보다 유방을 청결히하고 잘 보호하며 產母에게 적합한 乳房帶를 產後 1日경부터 착용한다. 유방대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유방대는 첫째 유방을 깨끗이 보호해주며 둘째 유방을 압박해줌으로써 유즙분비를 억제해 주며 셋째 유방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유종시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乳頭는 비누로 씻으면 상처가 나기 쉽고 유두의 피하지방이 제거되기 쉬우므로 물로 씻는 것이 좋다. Breast exercise⁷⁾가 장려되어야 한다.

◇ 운동 : 產褥期 동안에는 어떤 운동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2個月까지는 전대로 힘든 일

이나 특히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피하며 집안일을 되도록 간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산후 운동은 임신으로 인하여 늘어난 신체 각부근육의 원상복귀(특히 자궁위치의 회복)를 위한 것으로 Knee chest position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출산 3주후부터 처음에는 아침 저녁 2회에 2분씩 하다가 차차 시간을 늘여간다^{*)}.

◇ 食餌: 분만직후는 流動食餌와 우유, 차등을 준다. 高비타민, 高담백식이 권장되며 적어도 1日 2,600~2,800Cal의 식사와, 유즙축진을 위해 약 1,000cc의 우유와 과즙 및, 1日 3,000cc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 離床(getting up): 건강한 產母의 대다수는 8시간~24시간 後에는 離床이 허용된다. 빠른 離床은 방광과 직장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자궁 내막의 치유를 촉진하며 자궁하수 및 전강회복을 촉진시킨다.

II. 研究方法 및 節次

A. 豫備調査

1. 道 具

총 25문항으로 된 質問紙를 作成하여 面接法으로 調査하였다. 調査內容은 본 조사내용을 간략화한 것이다.

2. 標集對象

京畿道 龍仁郡 南西面 衙谷 2里 아곡부락 總 64家口의 婦人을 對象으로 1974년 1월 중에 조사하였다.

B. 本調書

1. 道 具

本研究에서 使用한 道具는 總 34問項으로 된 質問紙(選擇型和 短答型 併用)로서 調査內容은 ① 分娩樣相(5問) ② 產褥期동안의 健康狀態(3問) ③ 產褥期 동안 유의한 작업 및 姿勢(2問) ④ 음식물(4問) ⑤ 會陰 및 Pad管理(5問) ⑥ 乳房管理(7問) ⑦ 出產을 겪는 心理(2問) ⑧ 其他(6問) 등이다.

2. 標集對象

出產經驗이 있는 서울市內 居住 婦人을 대상으로 經濟的 背景, 學歷 및 文化的 水準, 그

리고 年齡에 관계없이 492명을 選定하여 東大 家政科生으로 하여금 面接法에 의하여 調査 기록 하였다. (조사기간: 1974년 7월~9월)

3. 資料處理

수집된 자료는 ① 經濟水準別 ② 年齡別 ③ 學歷別로 分類하여 百分率算出法으로 분석 처리 하였다.

<本研究의 制限點>

1. 무작위선정이었으므로 경제수준별, 연령별, 학력별 事例數가 불균형하다.
2. 被調査者의 經濟 및 學歷수준에 다소 불정확한 점이 있을듯 하다.
3. 응답에 있어 特定子女로 제한치 않았음으로 중복된 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斷産年齡이 오래된 응답자의 경우 과거의 호된 기억에 의한 답변이므로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調査方法上 面接法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본조사지에는 短答型記入이 많았으므로 무응답자가 상당수 나왔다.

Ⅲ. 調査對象者의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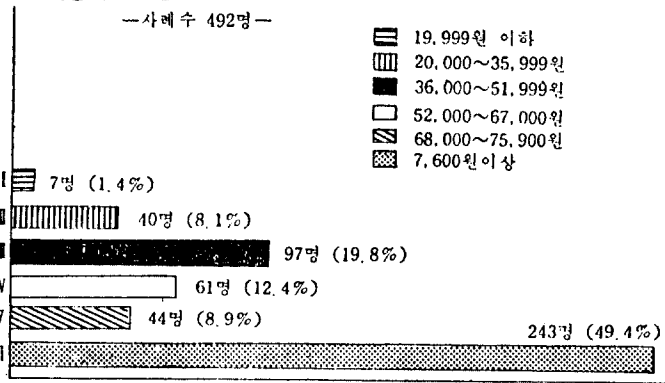
本研究對象者의 特性은 다음과 같다.

1. 經濟수준

對象婦人의 經濟수준을 보면 총 표집자 492명중, 월수 76,000원 이상이 4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월수 68,000~75,999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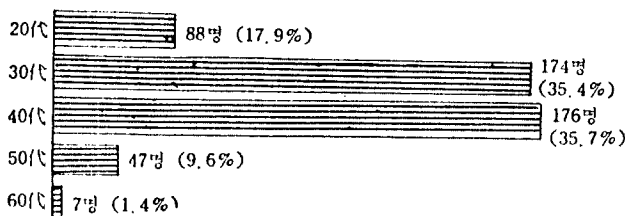
— 사례수 492명 —



경제 기획원 도시가계조사표 경제 수준 분류에 따름(1973년도말)

[연령별]

— 사례수 492 —



2. 연령별

40代婦人이 35.7%, 그 다음이 30代로서 35.4%를 차지하고 있다.

3. 학력별

高卒群이 전체의 4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大卒群으로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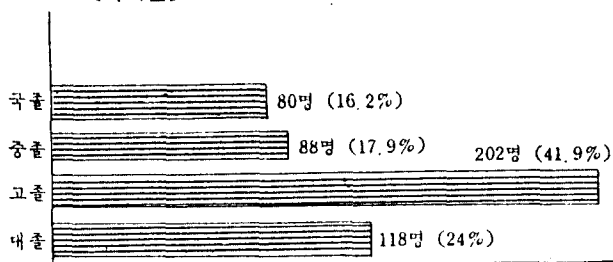
를 차지하고 있어, 본 표집 대상자는 대체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였다.

4. 초산과 단산연령

초산연령으로는 20~24세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단산연령은 30~34세가 가장 높다.

-사례수 492명-

[학력별]



연령 분류	초 산		단 산	
	인 원 (명)	%	인 원 (명)	%
20~24세	281	57.1	1	0.3
25~29세	183	37.2	71	21.8
30~34세	28	5.7	161	49.5
35~39세	—	—	72	22.2
40~44세	—	—	20	6.2
무응답	—	—	167	—
TOTAL	492	100.0	492	100.0

터 울(세)	인 원(명)	%
1	36	8.4
2	205	47.7
3	148	34.4
4	25	5.8
5	3	0.7
6이상	13	3.0
*무응답	62	—
TOTAL	492	100.0

* 조사일 당시 현재 자녀수 1명으로 답한 사람임.

5. 아기터울

아기터울은 2살 간격이 47.7%, 3살 간격이 34.4%이다.

6. 가족 구성

대상자의 80%가 핵가족형태의 가정이다.

<가족 구성>

구 분	인 원	%
시부모와동거	77	15.7
친정부모와동거	21	4.3
부 부 만	394	80.0
TOTAL	492	100.0

<가 정 부>

구 분	인 원	%
있 음	165	33.5
없 음	327	66.5
TOTAL	492	100.0

7. 가정부

가정부를 두고 있는 가정이 33.5%이다.

IV. 研究結果 및 解釋

A. 分娩樣相

◇ 분만장소: 본 결과는 경제수준 Ⅲ~Ⅵ群 모두가 病院分娩率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代, 30代에서 현저히 병원분만이 많다(표 2). 또 학력이 높아질수록 병원분만이 많다(표 3).

〈표 1〉 아기는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구 분	I		II		III		IV		V		VI		TOTAL	
	N	%	N	%	N	%	N	%	N	%	N	%	N	%
자기집	4	57.1	18	42.9	35	33.0	30	46.2	21	42.9	67	30.0	175	35.6
친정집	1	14.3	5	11.9	6	5.7	6	9.2	4	8.2	13	5.8	35	7.1
병원	2	28.6	16	38.1	62	58.5	28	43.1	20	40.8	126	56.5	254	51.6
조산원	—	—	3	7.1	3	2.8	1	1.5	3	6.1	15	6.8	25	5.1
기타	—	—	—	—	—	—	—	—	1	2.0	2	0.9	3	0.6
TOTAL	7	100.0	42	100.0	106	100.0	65	100.0	49	100.0	223	100.0	492	100.0

〈표 2〉 아기는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구 분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	%	%	%	%	%	%	%	%	
자기집	14.5	21.5	50.8	53.7	41.7					
친정집	4.8	4.5	7.3	13.4	8.3					
병원	79.5	68.9	34.5	26.9	41.7					
조산원	1.2	4	6.8	6	8.3					
기타	—	1.1	0.6	—	—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아기는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구 분	국졸	중졸	고졸	대졸	TOTAL
	%	%	%	%	
자기집	63.8	43.2	27.2	9.3	31.7
친정집	6.3	19.3	8.3	3.4	8.7
병원	25.0	30.7	58.7	86.4	54.9
조산원	2.5	6.8	5.3	0.8	4.1
기타	2.5	—	0.5	—	0.6
무답	—	—	—	—	—
TOTAL	100.1	100.0	100.0	100.0	100.0

이는 1972년 경기도 성남단지를 대상으로한 金¹⁰⁾ 및 趙¹¹⁾의 연구결과에서 自家分娩率이 각각 73.5%와 86.0%인 것에 비해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가장 이상적인 分娩環境은 病院에서 醫師가 助産하는 것이겠는데, 그 이유는 病院分娩을 함으로써 母性 및 新生兒死亡을 低下시킬 수 있고, 新生兒의 分娩時의 損傷, 呼吸障礙 및 呼吸不全과 感染의 防止가 可能하고 母性的 妊娠中毒症, 出血 및 産褥期 感染을 防止 또는 處置하기가 容易하기 때문이다¹²⁾.

◇ 분만개조인(分娩介助人): 경제수준 Ⅳ와 Ⅵ에서는 친정어머니보다 산파가 분만개조자로 많으나, 대체로 보아 친정어머니에게 분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서 심리적 안도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결과라 해석된다. 醫師, 看護

〈표 4〉 집에서 아기를 낳으셨을 때 아기는 누가 받았습니까?

구 분	I		II		III		IV		V		VI		TOTAL	
	N	%	N	%	N	%	N	%	N	%	N	%	N	%
시아머니	—	—	7	17.5	13	13.4	13	21.3	8	18.2	32	13.2	73	14.8
친정어머니	—	—	10	25.0	20	20.6	12	19.7	11	25.0	33	13.6	86	17.5
남 편	2	28.6	—	—	3	3.1	1	1.6	1	2.3	7	2.9	14	2.8
친척이나 이웃	1	14.3	4	10.0	2	2.1	5	8.2	4	9.1	11	4.5	27	5.5
산 파	1	14.3	7	17.5	17	17.5	18	29.5	7	15.9	55	22.6	105	21.3
기 타	1	14.3	3	7.5	3	3.1	3	4.9	2	4.5	20	8.2	32	6.5
무 답	2	28.6	9	22.5	39	40.2	9	14.8	11	25.0	85	35.0	155	31.6
TOTAL	7	100.1	40	100.1	97	100.0	61	100.0	44	100.0	243	100.0	492	100.0

員, 助産員 등 專門人의 介助人에 의한 분만율은 본조사에서 무응답이 많은 관계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50% 下位線인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나 金¹³⁾들의 연구결과를 外國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딱 낮은 율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향상책이 요구된다.

◇ 산욕기간 : 3週이내가 26.1%로 가장 높고 4週이내가 19.8%로 그 다음 순위이다.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산욕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수준 I에서는 1週이내가 28.6%로 수위불

〈표 5〉 몸조리는 얼마동안이나 하셨습니까?

구 분	I		II		III		IV		V		VI		TOTAL	
	N	%	N	%	N	%	N	%	N	%	N	%	N	%
1주일 이내	2	28.6	10	25.0	17	17.5	9	14.8	2	4.5	40	16.5	80	16.3
2주일 이내	1	14.3	7	17.5	21	21.6	10	16.4	4	9.1	33	13.6	76	15.4
3주일 이내	—	—	7	17.5	24	24.7	19	31.1	19	43.2	60	24.7	129	26.2
4주일 이내	1	14.3	10	25.0	20	20.6	17	27.9	8	18.2	41	16.9	97	19.7
4~5주일	1	14.3	5	12.5	13	13.4	5	8.2	8	18.2	46	18.9	78	15.9
6주일 이상	2	28.6	1	2.5	2	2.1	1	1.6	3	6.8	23	9.5	32	6.5
TOTAL	7	100.1	40	100.0	97	99.9	61	100.1	44	100.0	243	100.1	492	100.1

〈표 6〉 몸조리는 얼마동안 하셨습니까?

구 분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	%	%	%
1주일 이내	40.0	20.5	7.8	2.5
2주일 이내	15.0	23.9	16.5	16.9
3주일 이내	27.5	22.7	32.0	17.8
4주일 이내	7.5	18.2	19.9	25.4
5주일 이내	7.5	12.5	18.9	27.1
6주일 이상	2.5	2.3	4.9	10.2
TOTAL	100.0%	100.1%	100.0%	99.9%

〈표 7〉 몸조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	%	%	%	%
1주일 이내	18.5	12.4	17.6	14.3	45.5
2주일 이내	12.0	16.6	19.6	12.9	9.1
3주일 이내	25.0	24.3	24.2	34.3	36.4
4주일 이내	21.7	23.1	18.3	15.7	
4주일~5주일	17.4	17.8	12.4	15.7	9.1
6주일 이상	5.4	5.9	7.8	5.7	
무 답				1.4	
TOTAL	100	100.1	99.9	100.0	100.1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그날로 일어났다」와 「3일간 쉬었다」도 보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이 높을 때 기간이 길었다. 연령별로 분석할 때 50代까지는 「3週이내」

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3.7일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李¹⁴⁾의 연구에서는 산욕기간이 5~10일간이 가장 많았음(26.7%)에 비해 볼 때 본 결과는 고무려 현상이다.

참고로 이 기간중 주로 돌본 사람은 친정어머니가 42.4%, 시어머니가 30.3%이다(표 8). 「어떤 자제분을 낳았을 때 가장 몸조리를 잘 했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표 8> 산욕기중 주로 돌본 사람

구	분	세 율	
		N	%
시어머니		146	29.7
친정어머니		206	41.9
남 편		32	6.5
친척이나 이웃		51	10.4
기타 도움분		46	9.3
무 답		11	2.2
TOTAL		492	100.0

<표 9> 어떤 자제분을 낳으셨을 때 몸조리를 가장 잘 했습니까?

구	분	사 례 수	
		N	%
말이		304	61.8
딸만 있다가 태어난 아들		53	10.8
아들만 있다가 태어난 딸		14	2.8
산후 건강이 특히 나빴을 때		64	13.0
기타		26	5.3
무답		31	6.3
TOTAL		492	100.0

B. 產褥期間 동안의 건강상태 및 불편한 신체부위

◇ 산욕기의 건강상태 : 「대체로 좋았다」가 5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체로 좋으나 신체의 일부분이 아팠다」로 22.8%인데, 경제수준 I, II에서는 「아주 나빴다」 각각 14.3%, 20.0%여서 V, VI의 9.1%, 7.0%보다 상당히 높다.

<표 10> 산욕기간중 건강상태는 주로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I		II		III		IV		V		VI		TOTAL	
		N	%	N	%	N	%	N	%	N	%	N	%	N	%
대체로 좋았다		5	71.4	18	45.0	52	53.6	35	55.4	26	59.1	152	62.6	288	58.5
보통매(입신전)와 같았다		—	—	4	10.0	8	8.2	6	9.8	4	9.1	25	10.3	47	9.6
아주 나빴다		1	14.3	8	20.0	10	10.3	2	3.3	4	9.1	17	7.0	42	8.5
대체로 좋았으나 신체의 일부분이 아팠다		1	14.3	10	25.0	26	26.8	18	29.5	10	22.7	47	19.3	112	22.8
무 답		—	—	—	—	1	1.0	—	—	—	—	2	0.8	3	0.6
TOTAL		7	100.1	40	100.0	97	99.9	61	100.0	44	100.0	243	100.1	492	100.0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 기간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產前管護와 分娩環境이 적절치 못했음을 의미한다. 產前管護 및 적절한 分娩管理는 母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妊娠, 分娩, 產褥期에 産母 및 胎兒건강의 異常을 早期에 발견하는데도 必要하며 産母의 고통을 최소화도로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¹⁵⁾.

◇ 가장 불편했던 몸의 부위 : 가장 불편한 곳이 허리(24.8%), 그 다음이 홑배(22.4%), 3위가 회음열상(14.8%), 배(8.5%), 현기증(7.7%), 팔다리(6.3%), 두통(5.7) 등으로 경

〈표 11〉 이 기간중 가장 불편했던 몸의 부위

구 분	N	%
어 깨	16	3.3
허 리	122	24.8
머 리	28	5.7
배	42	8.5
홑 배	110	22.4
치 아	14	2.8
팔 다리	31	6.3
현 기 증	38	7.7
시력장애	7	1.4
회음열상	73	14.8
무 답	11	2.3
TOTAL	492	100.1

제수준이나 연령군에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단지 「현기증」에 있어 경제수준 VI群이 0.5%인데 비해 경제수준 下位群에서는 각각 13.9%(II群), 9.6%(III群)를 나타내고 있음이 특기할만 하다. 産母의 신체불편 부위로는 허리통이 가장 수위를 차지함은 李¹⁶⁾의 46%(서울지방)~77%(忠南 禮山地區)의 연구와 합치된다. 허리부위는 妊娠, 分娩過程中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평소 허리의 사용빈도, 作業臺에 따른 作業姿勢 등의 불합리도 그 큰 要因인듯하다. 洪¹⁷⁾에 의하면 産後 증상에는 所有物件數(文化水準), 教育程度 및 出産順位가 영향력이 컸는데 所有物件이 적은 group, 教育程度가 낮은 群 및 出産順位가 클수록 産後 症狀呼訴數가 많았다.

C. 산욕기중 유의한 작업 및 자세

◇ 산욕기 동안 한 일 :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50.3%로 가장 많으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집안일 모두를 도왔다」가 19.8%, 「실내청소만 도왔다」가 16.8%이며 이는 연령별, 학력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표 12〉 몸조리 하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 분	N	%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	246	50.5
가사 노동중 실내 청소만 도왔다	82	16.7
가사 노동중 취사만 조금 도왔다	30	6.1
취사뿐 아니라 빨래일도 도왔다	23	4.7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집안일 모두를 도왔다	97	19.7
가사 노동뿐 아니라 가업도 도왔다	8	1.6
무 답	6	1.2
TOTAL	492	100.0

대체로 섭생기동안 큰 무리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들어났으나 「집안일」의 내용은 분석해보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의 구조와 설비에 따른 「실내청소」 및 「취사」와의 관계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李¹⁸⁾에 의하여 밝혀진 바 妊娠中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빨래였던 (52.4%)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결과에서 産褥期中 「빨래일을 도왔다」가 47%인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14〉 산후 첫 목욕은 언제 하셨습니다?

구 분	N	%
출산직후에	24	4.9
1주일 이내에	82	16.7
2주일 후에	99	20.1
3주일 후에	122	24.8
4주일 후에	112	22.8
그 이상	29	5.9
무 답	24	4.9
TOTAL	492	100.1

을 쓰이면 폼이 붓기 때문」(12.3%), 「어른의 권유(바람이 든다는)」(12.4%), 「의사의 지시」(6.2%)이며 기타 「기운이 없어서」, 「추워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등이 있다. 참 고로 産後 첫 목욕에 대한 응답을 보면 〈표 14〉와 같다. 본 설문은 가정내의 목욕탕 유무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데, 적어도 Tub bath는 분비물이 그친 후(약 2週 後)여야 한다. 본연구 결과 3~4週가 으뜸인데 이는 선진국 과 비례할 때 가정에 Shower시설이 아직 흔치않은 탓이라 생각된다.

D. 산욕기중의 음식물

◇ 이 기간중 섭취한 음식물 : 「임신때보다 더 많이 섭취했다」(39.0%), 「보하였다.」(22.9%), 「보통때와 같았다」가 21.8% 순위이다. 연령군별로는 별 상위점이 없었으나 학 력이 높을수록 산욕기중의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표 15〉 몸조리 기간동안 음식물은 어떻게 섭취하셨습니다?

구 분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TOTAL
보통때와 같았다	32.5%	23.9%	20.5%	16.7%	21.8%
임신중과 같았다	16.9	7.6	15.4	11.3	13.2
임신 때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다	33.7	48.9	34.6	42.7	39.0
기타 보하였다	15.7	19.6	26.9	29.3	22.9
무 답	1.2		2.6		1.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한 내용은 〈표 16〉과 같은데 돼지족(35%)과 쇠족(31.9%)이 가장 많으며 이런 식품을 섭취한 이유로는 〈표 17〉 「깃분비를 위해」가 55.1%, 「몸에 좋으므로」가 29.9%를 차지하고 있다. 가물치는 온몸이 쭈시는데에, 꿀과 호박은 부중에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요법적인 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규명이 요구된다.

魚類의 「기타」의 내용은 매기, 가재미, 홍어, 뱀장어가 VI群에서 각각 1명씩이었다.

◇ 산욕기중 특히 많이 섭취한 음식 : 경제수준 VI群이 섭취식품의 종류도 다양하며 섭취 율도 높음을 〈표 16〉에서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산욕기에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음식은 「미역국」으로 응답자의 60%(314名)가 이를 취하고 있다.

「쌀밥을 많이 먹었다」는 응답이 II群에 3名, VI群에 8名 보이는데 이는 쌀밥에 대한 그 룻된 인식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역은 나쁜 피를 제거해 준다, 짓이 잘 나게 한다 등의 이유로 섭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産褥期食品으로 乳汁分泌촉진에

<표 16>

보한 음식 내용

구	분	I	II	III	IV	V	VI	N(명)	%
육	쇠족	—	6	5	8	4	38	61	31.9
	쇠꼬리·쇠관·쇠내장	—	—	—	—	—	5	5	2.6
	돼지족	—	6	13	10	6	32	67	35.1
류	탕	—	2	6	3	2	10	23	12.0
	연소고음	—	—	—	1	1	3	5	2.6
어	진부 및 홍합	—	—	—	—	—	2	2	1.0
	가물치	—	—	3	1	1	3	8	4.3
	잉어	—	1	1	1	1	1	5	2.8
류	문어	—	—	1	—	—	1	2	1.0
	기타	—	—	—	—	—	4	4	2.0
기	간 다 괴	—	1	—	—	—	1	2	1.0
	호박과 꿀	—	1	3	—	—	—	4	2.1
	인삼과 닭울 고음	—	—	1	—	—	1	2	1.0
타	참쌀과참깨로솔빛음	—	—	—	—	—	1	1	0.5
TOTAL		—	17	33	24	15	102	191	99.9

<표 17>

보하는 이유

보하는 이유	사례수	%
몸에 좋으므로(영양보충)	32명	29.9
젓 분비를 위해	59	55.1
어른들이 해줘서	3	2.8
속이 허해서	3	2.8
입맛을 위해	1	0.9
산후 원기회복	8	7.5
산후 부증이 생겨서	1	0.9
TOTAL	107	99.9

바람지하기는 하나 앞으로는 산육기식품 섭취에 있어, 더욱 균형있으며 Cal면에서도 습理的인 食品장려에 대한 계몽이 요구된다.

◇ 산육기동안 금했던 음식 : 금한 음식순위는 김치(26.3%), 매운 것(22.3), 딱딱한 음식(19.8%), 찬음식(16.7%) 순이다. 우리나라의 禁忌食品 종류중 妊娠, 産褥, 授乳期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教育水準과도 관계없이

<표 18>

산육기의 섭취 식품

		기 초 식 품 군 별 분 류											
구분	식품	1군 : 탄수화물		2군 : 단백질		3군 : 칼슘		4군 : V. 무기질		5군 : 지방		기타	
		(%)	(%)	(%)	(%)	(%)	(%)	(%)	(%)				
식	쌀 밥	2.6	최 고 기	15.5	우 유	2.3	미 역 국	59.5	버터	0.2	국	0.5	
	찰 밥	0.2	쇠 내 장	0.5	떡	1.5	김	30.5					
	품	감자국	0.2	뼈고은것	0.2		는생선	쇠	간	0.2			
		빵	0.2	생 선	0.9			시 금 치	0.8				
명			굴뚝	0.4			채	소	1.9				
			두 부	0.2		호박	호박	0.4					
			달 갈	6.2		과	탕	4.9					
						쥬	일 스	0.2					
		TOTAL											
		100%											

<표 19>

금 기 음식

이 유	이가 시리므로		소화가 안되므로		어른이 말려서		기타 이유		TOTAL	
	N	%	N	%	N	%	N	%	N	%
찬 음식	99	25.3	1	2.1	7	4.6	1	1.8	108	16.7
매운 것	64	16.4	11	23.4	39	25.7	30	52.6	144	22.3
김 치	119	30.4	5	10.6	39	25.7	7	12.2	170	26.3
딱딱한 것	63	16.1	20	42.6	36	23.7	9	14.9	128	19.8
자극성음식	17	4.4	8	17.0	10	6.6	1	1.8	36	5.6
두 부	29	7.4	2	4.2	21	13.7	9	14.9	61	9.3
기 타
TOTAL	391	100.0	47	100.0	152	100.0	57	100.0	647	100.0

※ 본 설문은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케 했으므로 N수가 많아짐.

미신, 인습 혹은 誤信의인 양상을 띠고 있다. 毛¹⁹⁾의 우리나라 농촌 식품금기 조사의 결과에서 산육기의 금기식품으로 무김치, 두부, 호박, 고추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본연구와 일치되는 바 있다.

◇ 產褥期 동안의 복용제 관계 :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21.3%가 양약을, 28.5%가 한약을 복용했다고 나타나 있는데(무답이 50.2%) 우리나라 부인들은 산육기에 한방제통의 약을 더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은 복용제의 내용이다.

<표 20>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구 분	양 약								한 약								
	I	II	III	IV	V	VI	총계	%	구 분	I	II	III	IV	V	VI	총계	%
칼슘	N	N	N	N	N	N	N		보 약	N	N	N	N	N	N	N	
비타칼슘	—	2	1	3	2	5	13	6.8	녹 용	—	3	1	1	1	10	16	8.4
헤모글로빈	—	2	1	1	2	6	12	6.5	인 산	—	2	2	—	1	3	8	4.3
비 타 민	1	2	4	7	5	21	40	20.9	四 物 湯	—	—	1	1	1	4	7	3.7
미 네 랄	1	—	—	1	—	3	5	2.6	꿀	—	—	—	—	1	2	3	1.6
마 이 신	—	—	1	—	—	6	7	3.6	경 옥 고	—	—	1	—	—	—	1	0.5
자궁수축제	—	1	—	—	—	1	2	1.0	쑥	—	—	—	—	—	1	1	0.5
소 화 제	—	1	—	—	—	1	2	1.0	젓분비축진제	—	—	2	—	—	1	3	1.6
아스피린	—	—	—	1	—	1	2	1.0	뽕배안아픈약	—	1	2	1	—	—	4	2.1
네 오 톤	—	1	—	1	—	2	2	1.0	요통치료약	—	1	1	—	—	—	2	1.0
기 타	—	—	—	—	—	4	4	2.0									
TOTAL	2	9	7	14	9	48	89	46.4	TOTAL	—	10	20	11	14	47	102	53.6

양약으로는 비타민제가 수위(20.9%)이며 칼슘제가 6.8%로 둘째 순위이다. 양약의 「기타」 내용은 「소입제」, 「젓분살치로제」, 「부기빼는약」, 「아로나민」 등이 VI群에서 각각 1명씩이다.

한약으로는 보약(29.9%), 녹용(8.4%), 인산(4.2%) 등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 경제수준 VI群에 약복용이 많다.

E. 會陰 Pad 管理

◇ 산욕기동안 사용한 會陰 Pad(月經帶) : <표 21>에서 보면 60代는 66.7%가 삼베를 사용하며 20代에서는 삼베사용을 전혀 볼 수 없다. 연대가 낮아질수록 약국판매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Pad 고정법에 있어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뒷쪽부터 고정시킨 후 앞쪽으로 보낸다」(47.8%)이며 그 반대가 33.5%, 「일정치 않다」가 12.0%로 나와 있는데, 항문에서의

<표 21> 산욕기중 사용한 월경대의 감

구 분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代 이상		TOTAL	
	N	%	N	%	N	%	N	%	N	%	N	%
삼 베	—	—	12	6.8	26	16.6	12	17.1	6	66.7	56	11.1
광 목	4	4.3	3	1.7	10	6.4	5	7.1	—	—	22	4.3
소 창 지	59	64.2	126	71.2	115	73.2	53	75.8	3	33.3	356	70.5
폐 물 이 용	—	—	—	—	5	3.2	—	—	—	—	5	1
약국에서파는생리대	29	31.5	36	20.3	1	0.6	—	—	—	—	66	13.1
TOTAL	92	100	177	100	157	100	70	100	9	100	505	100

※ 본 설문은 해당사항 모두를 선택케 했으므로 N수가 많아짐.

大腸菌 汚染을 방지키 위해서는 앞쪽부터 고정시키도록 계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뒷물방법에도 적용된다. 入院中 의사나 간호원을 통한 Pad의 위생적인 취급법과 교환법에 대한 교육이 산모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다.

◇ 몸조리기간 동안의 뒷물관리 : 뒷물용액은 <표 22>와 같은데, 학력별 大卒群에서는

<표 22> 뒷 물 용 액

구 분	N	%
쑥 물	106	21.5
수도물을 그대로	77	15.7
수도물을 끓여서	194	39.4
우물물을 그대로	24	4.9
우물물을 끓여서	21	4.3
붕산수	49	10.0
기 타	15	3.0
무 답	6	1.2
TOTAL	492	100.0

「수도물을 끓여서」가 50.0%로 가장 높았으나 「쑥물」은 國卒群에서 1위(35.0%)였다.

산욕기중의 뒷물횟수(표 23)에 있어서 高卒과 大卒群에서는 「평소와 별 차이가 없다」에 각각 15.0%, 9.3% 등의 낮은 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뒷물용기 사용 실태는 <표 24>과 같다. 「세수대야와 뒷물용 용기를 병용한다」가 전체의 35.4%나 되는 것은 계몽해야 할 점이다. 이

점을 학력별로 비교해 볼 때 國卒 40.0%, 大卒群 26.2%로 학력이 높은 群에서 병용하는 율이 줄어들고 있는 있으나, 본 설문은 우리나라 婦人의 위생관념을 반영시키는 자료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표 23> 산육기중의 뒷물횟수

구	분	N	%
각별히 자주·아주 조심스럽게 한다		179	36.4
평소보다 조금 관심을 더한다		137	27.8
별차이 없다		110	22.4
무 답		66	13.4
TOTAL		492	100.0

<표 24> 뒷 물 용 기

구	분	N	%
반드시 따로 두고 쓴다		285	57.9
세수대야와 뒷물용기를 같이 쓴다		170	34.6
일정치 않다		24	4.9
기 타		6	1.2
무 답		7	1.4
TOTAL		492	100.0

F. 乳房 및 初乳管理

◇ 初乳管理 : 初乳를 아기에게 반드시 먹이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30.2%가 먹이지 않
고 있으며 이것은 教育水準별로도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먹이지 않은 이유중 「나쁜

<표 25> 初乳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 분	먹 인 이 유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총계(%)
① 먹 었 다	아기에게 좋아해서	50.0	33.3	36.1	25.3	32.6
	면역성	6.3	6.1	13.3	26.5	16.7
	태변배설	6.3	18.2	10.8	24.1	16.7
	영양이 풍부해서	6.3	12.1	24.1	18.1	18.6
	어른의 권유	12.5	12.1	7.2	1.2	6.0
	의사·간호원의 지시	6.3	9.1	4.8	3.6	5.1
	책에서 읽고	—	—	2.4	—	0.9
	이유없이 그냥	12.3	9.1	1.3	1.2	3.4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먹이지 않은 이유	국졸(%)	중졸(%)	고졸(%)	대졸(%)	총계(%)
② 먹 이 지 않 았 다	영양이 없기 때문	4.2	9.7	6.1	—	5.2
	어른의 권유	29.2	20.4	21.2	24.2	22.7
	나쁜것 같아서	37.5	49.4	54.1	24.5	44.5
	우유를 먹이므로	4.2	6.5	1.5	15.6	5.8
	젖이 너무 많아서	12.5	9.7	—	—	4.0
	아기가 빨지 않아서	8.3	—	7.1	3.0	4.5
	이유없이 그냥	—	4.3	—	3.0	2.3
	산모가 아파서	—	—	1.5	24.2	6.5
	기 타	4.1	—	8.5	5.5	4.5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것 같아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더러워서」(9.7%), 「속짖을 먹이기 위해」(5.2%), 「너무
진하고 노래서」(6.5%), 「소화가 안되어서」(9.1%), 「아기에게 해로워」(6.2%) 등으로 극
히 막연하고 비과학적인 편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산후 약 두달동안 젖분비량은

충분했습니까?」의 설문결과를 보면 「풍부했다」(50.8%), 「적당했다」(25.3%), 「부족했다」(20.3%)로서 경제수준별에 따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가설을 뒤엎는 것이었다. 乳汁分泌는 영양상태뿐 아니라 體質도 크게 관여됨을 시사해준듯하다.

〈표 26〉 젖이 잘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	분	N	%
	국물을 많이 먹었다	233	32.1
	평상시보다 식사량을 많이 취했다	66	9.1
	돼지족, 쇠족 등을 삶아 먹었다	139	19.2
	한약이나 양약을 먹었다	38	5.2
	젖을 짜내거나 아기에게 빨렸다	69	9.5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였다	63	8.7
	정신적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55	7.6
	기타 방법	23	3.2
	무 답	39	5.4
TOTAL		725	100

※ 해당사항에 모두 응답했으므로 N수가 많아짐.

◇ 젖분비 촉진 방법 :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물섭취」(32.1%), 「돼지족·쇠족 섭취」(19.2%), 「젖을 짜내거나 아기에게 빨렸다」(9.5%)순인데, 이는 경제수준별로 검토할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력별로 검토할 때 「정신적 안정을 취했다」에 답한율이 國卒, 中卒群에서 자기 5.2%, 4.9%인데 비해 高卒, 大卒群에서는 각각 9.2%, 8.5%를 보였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27〉 임신 기간중 유방관리에 신경을 썼습니까?

구	분	20 代		60 代		TOTAL	
		N	%	N	%	N	%
	네	52	59.1	3	42.9	55	57.9
	아니오	29	33.0	4	57.1	33	34.7
	무 답	7	8.0	—	—	7	7.4
TOTAL		88	100	7	100.0	95	100.0

◇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유방관리 여부 : 유방관리에 유의한 부인이 57.9%이며 유의하지 않은 부인이 34.7%이다. 20代와 60代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유방관리를 한 이유는 〈표 28〉과 같다.

유방관리 법으로는 「손으로 마사지」(26.5%), 「젖먹일 때마다 젖꼭지를 깨끗이」(26.0%), 「손마사지와 찜질」(16.1%), 「더운 찜질」(13.1%) 등이 있었다.

◇ 산육기동안 겪은 유방의 불편 : 본 설문은 자각증상에 의한 응답이기 때문에 다소 신

〈표 28〉 임신기간이나 젖먹이는 동안 유방 관리한 이유

구분	이유	유	%	구분	이유	유	%	
했	위생관리		50.7	안	젖이 풍부해서		37.5	
	젖 분비 위해		18.5		우유로 키워서		17.5	
	유방이 처질까봐		7.1		별이상이 없어		25.0	
	젖몸우리를 풀기 위해		5.7		너무 바빠서		7.5	
	작 젖이 될까봐		0.9		관심이 없었다		5.0	
다	젖이 많아서		4.7	다	나이가 어려서		7.5	
	젖꼭지가 나오지 않아		0.9					
	아기의 건강을 위해		5.2					
	유두에 상처날까봐		0.5					
	유방통증이 있어		5.2					
직장생활 때문		0.5						
TOTAL			100	TOTAL			100	

〈표 29〉 산욕기중 겪은 유방의 불편

이유	유	%
젖 몸살		46.5
유방 언		30.2
젖꼭지가 험		18.6
젖꼭지가 들어가 아기가 빨지 못해서		4.7
TOTAL		100.0

병성에 차질이 있는 듯하나 응답자의 46.5%가 젖몸살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유방 관리면의 소홀(無知 등의 이유로)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 산욕기동안의 브라자 착용 : 〈표 30〉에서와 같이 67.6%가 이 기간에 브라자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李²⁰⁾에 의하면 유방울혈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알고 있는 產婦는 30% 정도밖에 안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학력별로 별차이가 없었다. 산후 알맞는 브라자 착용은 젖분비

〈표 30〉 몸조리동안 브라자 착용은 어떠하셨습니까?

구분	N	%
착용하지 않았다	330	67.1
소창같은 천으로 둘러 묶었다	42	8.5
출산전에 쓰던 것을 착용했다	48	9.8
젖가슴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새것을 착용했다	60	12.2
무 답	12	2.4
TOTAL	492	100.0

조절, 유방울혈시의 통증감소 및 유방형태보존 등에 도움이 됨을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G. 出産을 겪는 여자의 心理

◇ 妊娠을 수행하는 여자의 자각 : 「축복으로 생각한다」가 44.7%,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가 25.4%, 「할 수 없는 일이다」가 20.7% 등으로 학력과의 상관도는 없었다.

〈표 31〉 여자가 아기를 낳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분	N	%
축복으로 생각한다		220	44.7
여자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2	8.5
할 수 없는 일이다		102	20.7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		125	25.4
무 답		3	0.7
TOTAL		492	100.0

◇ 産褥期중에 겪은 心理 : 「흐뭇했다」(34.1%), 「울적했다」(16.3%), 「기뻐다」(15.9%), 「정상시와 다름없었다」(11.8%) 등이며 기타 心境으로는 「신경이 예민해짐」, 「딸을 낳아 섭섭하고 미안하며 우울함」 등을 들고 있다. Dr. Spock²¹⁾에 의하면, 특히 첫아이를 낳은 산

〈표 32〉 산욕기동안에 겪은 心理

구	분	N	%
울적했다		80	16.3
짜증스러웠다		48	9.8
흐뭇했다		168	34.1
기뻐다		78	15.9
정상시와 다름없었다		58	11.8
어머했는지 잘 모르겠다		43	8.7
기 답		13	2.6
무 답		4	0.8
TOTAL		492	100.0

모는 한동안 우울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의 자유로운 시절을 벗어나 育兒라는 새롭고 벅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 出産과정 을 통한 身體기능의 變化, 손을 기다리고 있는 家事處理에의 중압감 등을 들고 있다. 참고로 「산욕기동안 남편의 관심 및 조력은 어떠했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정상스러웠다」가 54.3%, 「조금 관심을 주었다」가 35.4%, 「무심했다」가 7.7%인데 이 기간중에는 남편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하겠다.

H. 기 타

◇ 태반처리 : 「병원에 맡겼다」가 36.2%로 수위이며 「방위에 관계없이 불에 태웠다」가 20.1%, 「방위를 가려 불에 태웠다」가 17.9%로 3位인데 병원분만이 아닌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반처리를 조심성 있게 다루고 있는 인습을 지니고 있는듯 하다. 이 점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심한 경향이어서 「손이 들지 않은 방위를 태해 태우거나, 「태열과 정력에 좋아 약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에 있다.

<표 33> 태반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	분	N	%
方位를 가려 불에 태웠다		88	17.9
방위에 관계없이 불에 태웠다		99	20.1
물에 띄웠다		78	15.9
땅에 묻었다		31	6.3
약에 썼다		2	0.4
병원에 맡겼다		178	36.2
기 타		11	2.2
무 답		5	1.0
TOTAL		492	100.0

◇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방법 :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가 52.8%, 「인줄을 쳤다」가 43.5% 등인데, 본 설문은 연령群별로 차이가 많았다. 즉 「인줄을 쳤다」에 대한 응답율이 20代—24.4%, 30代—33.4%, 40代—55.1%, 50代—59.7%, 60代—88.9%로 나타났음에 미루어 이런 풍속은 차차 사라져가고 있는듯 하다.

<표 34>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	분	N	%
인줄을 쳤다		214	43.5
대문에 불을 떠놓았다		4	0.8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260	52.8
기 타		3	0.6
무 답		11	2.3
TOTAL		492	100.0

<표 35> 출산후 첫 성생활은 언제였습니까?

구	분	N	%
1주일 이내		11	2.2
1~2주일 후		23	4.6
3~4주일 후		146	30.0
5~6주일 후		130	26.3
6주일 후		173	35.0
무 답		9	1.9
TOTAL		492	100.0

◇ 出産後의 첫 性生活 : <표 35>에서와 같이 「3~4주일후」(30.0%)가 가장 높다. 産褥期 家族計劃事業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 産褥期동안 실시한 運動 : 이 기간중에 하는 운동은 거의 없음이 밝혀졌는데 (표 36),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부인의 운동종류는 <표 37>과 같다. 본설문의 응답결과로서 추이해

<표 36> 이 기간중 특히 하신 운동은 ?

구	분	N	%
있	다	40	8.0
없	다	425	86.4
무	답	27	5.6
TOTAL		492	100.0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妊産婦에 대한 教育(産前管護受診)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들에 의한 이 方面의 대책이 요구된다.

<표 37> 산욕기의 운동 종류

구	분	N	%
미용체조		9	28.1
가벼운 맨손체조		5	15.6
실내걷기		3	9.4
팔다리운동		4	12.5
허리운동		8	25.0
목운동		1	3.1
배운동		1	3.1
자궁후굴을 막기 위한 운동		1	3.1
TOTAL		32	100.0

V. 要約 및 提言

<要約>

본 연구는 서울지구 產褥實態를 經濟水準別, 年齡別, 學歷別로 파악함으로써 母子保健向上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標集者의 分布度가 불균형하기는 하나 서울지구의 實態는 대략 파악되었다.

A. 分娩樣相

1. 다른 연구보고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병원분만이 수위(5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2. 非專門人에 의한 분만介助 내지 산욕기 조력자로서는 친정어머니가 수위(17.5%), 시어머니가 2위(14.8%)를 차지하고 있다.
3. 산욕기간은 3週이내가 26.1%로 가장 높다(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길어짐).

B. 산욕기 동안의 건강상태 및 불편한 신체 부위

1. 「대체로 좋았다」가 58.5%로 수위이며 경제 수준에 따라 이 기간의 건강상태에 차이를 보였다.
2. 가장 불편했던 몸의 부위로는 허리(24.8%), 홑배(22.4%), 회음열상(14.8%) 등이다.

C. 산욕기중 유의한 작업 및 자세

1. 산욕기동안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50.3%,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집안 일 모두를 도왔다」가 19.8%로서 서울 產母들은 대체로 이 기간동안 큰 무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산욕기중 특히 금했던 일은 「몸을 차지 않도록 하였다」가 23.4%,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다」가 19.7% 등이다.

각 자세에 유의한 이유는 「어른들의 권고에 의해」(20%~45%)가 수위로 이 집은 학력별로도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미루어 서울 부인은 대부분 산욕기중 시댁에 의해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D. 産褥期 中の 음식물

1. 「임신때보다 더 많이 섭취했다」가 39.0%, 「보하였다」가 22.9%이다. 보할 내용으로는 젓분비를 위하여 쇠족(31.9%), 돼지족(35.0%)을 으뜸으로 섭취하고 있다.

2. 이 기간중 특히 많이 섭취한 것으로 「미역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균형식에 관한 계몽이 요망된다.

3. 산욕기동안 금했던 음식의 순위는 김치(26.3%), 매운것(22.3%), 딱딱한 음식(19.8%) 등인데 그 이유로 「어른이 만류해서」가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급기에 있어 인습, 미신, 誤信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이 기간중 영양복용은 21.3%, 한약복용은 28.5%로 각각 비타민제와 보약을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서울 産婦는 한방계통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E. 會陰 Pad 管理

1. Pad감으로는 삼배(高齡層)나 소창직 내지 약국의 생리대(低齡層)를 사용하고 있는데 착용방법에 대한 위생적인 관심은 거의 없다.

2. 산욕기동안의 뒷물관리에서의 특징으로 축을 사용하고 있는 율이 높다(I群에서 35.0%). 뒷물용기 사용법중 「세수대야와 검용」이 학력群과 관계없이 35.4%나 뒤은 조속한 계몽이 요망된다.

F. 乳房 및 初乳管理

1. 初乳에 대한 認識이 아직도 낮아 30.2%가 먹이지 않고 있으며 먹이지 않는 이유중 非科學的인 知識이 많이 드러나 있다.

2. 젖분비 촉진 방법에 있어 「국물섭취」가 수위(32.1%)로 대부분 올바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 서울 産婦들은 「돼지족·쇠족섭취」(19.2%)율이 높다. 「정신적 안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은 高學力群에서 많이 보인다.

3. 유방관리를 하는 부인은 57.9%, 유의하지 않는 부인이 34.7%인데 유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이 요망된다. 브라자 착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실정이다.

G. 出産을 겪는 여자의 心理

1. 「축복으로 생각한다」가 44.7%, 「아주 고통스럽다」가 20.7%로 상반되는 심리를 호소하고 있다.

2. 산욕기중의 심리변화에서 「흐뭇했다」(34.1%)가 많으나 「울적했다」(16.3%)도 많은 비율이며 대부분이 딸을 낳았을 때 울적함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H. 기 타

1. 胎盤처리법은 高齡群에 있어 「태웠다」가 37.9%, 「병원에 맡겼다」가 低齡群에서 36.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태반처리에 있어서는 비과학적인 因襲이 많이 남아 있다.

2. 아기가 태어남을 알리는 방법으로 「인줄을 쳤다」(43.5%)의 응답자가 高齡群에 많은 우리나라 민속의 흐름을 추이해 볼 수 있게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 52.8%이다.

3. 산욕기동안 실시하는 운동(Breast Exercise, knee Chest Position) 등에는 거의 무관심하고 있다.

<提 言>

1. 婦人들의 產褥에 關한 知識源으로는 학교교육 및 舊世代로부터의 傳受方法외에 醫療 專門家들에 의해 얻어지고 있는 實情이므로 이 方面의 積極적인 對策이 要求된다. 특히 妊 產婦에 對한 教育(특히 產前管護受診을 통한)은 중대하다.

2. 產褥期 家族計劃 事業의 積極적 추진이 要求된다.

3. 產褥期의 섭취 식품이나 服用劑에 있어 漢方系統을 따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데 家 政學徒로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要求된다.

4. 產褥期는 妊娠, 分娩과 關係가 깊은만큼 앞으로 이 方面에 대한 相關研究가 要求된다.

<註>

- 1) 語源 : Puer=a child, pareve=to bring forth
- 2) Fitzpatrick·Eastman·Reeder, *Maternity nursing* J.B Lippincott Company, p. 297.
- 3) Fitzpatrick·Eastman·Reeder, p.339
- 4) Fitzpatrick 外, 前掲書, p. 299.
- 5) Fitzpatrick 外, 前掲書, p. 315.
- 6) Fitzpatrick 外, 前掲書, p. 315.
- 7) Fitzpatrick 外, 前掲書, p. 334~335.
- 8) Fitzpatrick 外, 前掲書, p. 333.
- 9) Fitzpatrick 外, 前掲書, p. 340.
- 10) 金永德·朴在一, 產前管護 및 分娩環境에 關한 調查研究. 中央醫學 24, 1974, p, 407,

- 11) 趙敬植, 家族計劃實施者와 非實施者의 母子保健實態. 家族計劃研究院, 1973, p. 43.
- 12) 洪在雄·趙敬植·姜吉遠, 母子保健의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3, p. 12.
- 13) 金永德外, 前掲書. 1974, p.
 성남시에서 調査한 結果에는 自家分娩이 73.5%로서 가장 많았고 病院分娩이 16.1%였는데 自家分娩의 이유로서 「病院에 갈 필요가 없다」가 42.1%이며 「비용 때문에」가 23.5%임. 그리고 自家分娩인 경우 分娩介助者는 家族이 67.3%, 助産員이 16.9%, 醫師가 4.6%였음.
- 14) 李泰賢, 韓國女性의 어린이 出産을 前後한 諸環境 및 精神的 肉體의 動態에 대한 考察. 高麗大學校 文理科大學論文集 第6輯, 1973, p. 401.
- 15) 金永德外, 前掲書. 1974, p.
- 16) 李泰賢, 前掲書. 1963, p. 404.
- 17) 洪在雄外, 前掲書. 1973, p. 38.
- 18) 李泰賢, 前掲書. 1963, p. 398.
- 19) 牟壽美, 韓國農村의 食品禁忌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5호, 1966, p. 20.
- 20) 이미라·홍경자·문혜리, 임신부의 교육적요구에 대한 조사연구. 中央醫學, 1973, p. 725(이 연구에 의하면 「산욕기간중에 필요한 주의사항 순위」를 묻는 질문에 「유방울혈」이라 답한 율이 4위이며 또 「산욕기간중에 알고 싶었던 사항」을 묻는 순위에서는 수유기간동안의 유방 손질을 알고 싶었다가 6위에 지나지 않았다)
- 21) Benjamin Spock, *Baby, and Child Care*, Pocket Book, 1973, p. 23.

參 考 文 獻

- 1) 崔貞子·朴萬龍, 産科 및 婦人科看護學. 壽文社, 1970.
- 2) 河英洙, 産小兒科 看護學. 壽文社, 1972.
- 3) Fitzpatrick·Eastman·Reader, *Maternity nursing*. J.B. Lippincott Company.
- 4) Benjamin Spock, *Baby and Child Care*. Pocket Book, 1973.
- 5) 이미라, 임신부의 교육적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中央醫學 25, 1973.
- 6) 金永德·朴在一, 産前看護 및 分娩環境에 관한 調査研究. 中央醫學 24, 1973.
- 7) 李泰賢, 韓國女性의 어린이 出産을 前後한 諸環境 및 精神的·肉體의 動態에 대한 考察. 高麗大學校 文理科大學論文集 第6輯, 1963.
- 8) 姜吉遠·金仁達·權彝赫, 産前管理 및 分娩環境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別册(第10號), 1970.
- 9) 金泰龍, 母性保健의 實際. 家族計劃研究院, 1973.
- 10) 姜吉遠·洪在雄·金泰龍. 中東齋, 家族計劃과 母性保健.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1973.
- 11) 洪在雄·趙敬植·姜吉遠, 母子保健實態의 要因分析. 家族計劃研究院, 1973.
- 12) 文顯相·韓聖鉉·崔焯, 出産力과 家族計劃. 家族計劃研究院, 1972.
- 13) 牟壽美, 韓國農村의 食品禁忌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5호, 1966.